



보도자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1년 6월 3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군, 농경문화관 ‘웰컴 투 대장간’ 주말 체험으로 좋아요~

자료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홍영의(☎540-3406)

담당자 차혜원(☎540-3409)

보은군은 농경문화관과 보은 대장간에서 ‘웰컴 투 대장간’ 주말 나들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은 농경문화관과 삼년산성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8회 진행된다.

충청북도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인 ‘웰컴 투 대장간’에서는 동그란 철을 빨갛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기, 풀무를 힘껏 당겨봐요,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의 대장간 시연, 쇠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아울러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삼년산성 공원(산림욕장)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걸으며 준비해 온 도시락을 가족과 함께 먹는 새로운 추억거리도 준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도 배우고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가족 나들이가 될 것”이라

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가을에는 “삼년산성에 가면 대장장이가 있다” 라는 주제로 삼년산성과 대장간을 연계한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성료

- 산나물을 이용한 힐링 밥상으로 교육생 매료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박유순(☎540-5766)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농업인과 지역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과 산나물을 활용한 힐링 밥상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산나물 불고기 샌드위치, 산나물 또띠아, 산나물 지지미(녹색 전병), 산나물 향미 묵, 산나물 쌀빵 버거, 산나물 장아찌 김밥 등이 선보여 졌으며 음식 사진과 레시피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순 생활자원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쌀과 산나물이 더욱 사랑받길 기대한다” 며 “보은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보은군 내북면 직원, 일손 부족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추진

자료문의 내북면 산업팀장 박은영(☎540-4321)

담당자 홍영택(☎540-4323)

보은군 내북면(면장 김상식)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영농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전전공공하던 내북면 도원리 이재준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은 대추순 제거와 제초 작업 등 농장일을 내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및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해 진행했다.

이재준 농장주는 “일선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일손돕기에 동참해줘 바쁜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됐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상식 내북면장은 “농사일로 걱정하는 주민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에 계속 참여하겠다” 고 말했다.